

# 수메르어로 된 길가메시 서사시는 존재했을까?\*

김구원(전주대)

## 1. 들어가는 말

우리에게 가장 잘 알려진 길가메시 이야기는 니느웨의 앗수르바니팔 도서관에서 발견된 표준 버전이다. 이것은 기원전 7세기의 사본으로, 그것의 가장 원시적 형태는 고바빌론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간다.<sup>1</sup>

\* 이 논문은 2023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23S1A5C2A02095273)

1 표준 버전의 본문 형성 역사에 대한 개괄을 보려면 다음을 참조하라: Andrew George, *The Babylonian Gilgamesh Epic: Introduction, Critical Edition, and Cuneiform Text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3), 3-70; Jeffrey H. Tigay, *The Evolution of the Gilgamesh Epic* (Wauconda: Bolchazy-Carducci Publishers, 2002). 길가메시 서사시의 고바빌론 버전의 존재는 20세기 초에 알려지게 되었다. 1914년에 펜실베이니아 대학(University of Pennsylvania)과 예일 대학(Yale University)이 거의 동시에 6개 칼럼으로 된 고바빌론 시대의 토판들(OB II과 OB III)을 각각 구입하였다. 비교적 보존 상태가 좋은 펜실베이니아 토판(OB II)은 엔키두의 도래에 대한 길가메시의 꿈, 창기 삼합에 의한 엔키두의 문명화, 엔키두와 길가메시의 만남 등의 내용을 담고 있고, 예일 토판(OB III)은 길가메시가 엔키두와 더불어 삼나무 숲으로 여행하기 직전까지의 일화들을 담고 있다.

표준 버전과 고바빌론 버전을 비교한 앤드류 조지(Andrew George)에 따르면 전자는 전형 장면에 대한 풍성한 반복을 통해 그리고 새로운 내용의 첨가를 통해 후자를 확장 개정하였지만, 기본적 주제와 플롯에 있어서는 변함이 없고, 심지어 그 둘이 겹치는 부분에서는 거의 행 단위로 어휘와 어순에 있어 일치성을 보인다.<sup>2</sup> 표준 버전이 12개의 토판에 걸친 장편 서사시라면 고바빌론 버전은 4-5개의 토판에 담긴 중편 서사시라 할 수 있다.

표준 버전과 고바빌론 버전은 그 길이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길가메시에 대한 다양한 일화들이 하나의 주제, 일관된 플롯을 따라 편집된 유기적 서사라는 점을 공유한다. 하나의 토판에 전부 다 담지 못하기 때문에 보통 여러 다중 칼럼 토판(multi-column tablets)에 나누어 기록되었다. 이것은 토판의 서기관 간기(Colophon)에 의해서 확인된다. 토판의 간기는 본문의 일부로는 여겨지지 않으며 서기관이 토판에 담긴 행수, 이야기의 제목, 필사자의 이름, 필사 장소나 시간 등을 표기하는 장치였다.<sup>3</sup> 다음은 표준 버전 제1토판의 간기의 일부이다(MS B<sub>1</sub>, MS F<sub>4</sub>).

DUB 1-KAM ša naq-ba i-mu-ru ÉŠ.GÁR 4GIŠ-gím-maš ...

토판 1, '심연/모든 것을 본 자' 길가메시 시리즈 ...

이 간기는 해당 토판이 길가메시 시리즈 서사 중 첫번째 토판임을 표시하는 동시에, 그 시리즈의 제목이 "심연/모든 것을 본 자"임을 가르쳐 준다.<sup>4</sup> 표준 버전의 사본들의 경우, 이런 간기가 2, 3, 7, 8토판을 제

2 Andrew George, *The Epic of Gilgamesh* (UK: Penguin, 2020), xxv.

3 A. Gadotti, *Gilgamesh, Enkidu and the Netherworld and the Sumerian Gilgamesh Cycle* (Berlin: De Gruyter, 2014), 100.

4 아카드어 *naqbu*는 희귀 동사 *naqābu* "깊다"에서 파생된 말로, 예아(Ea)의 영역인 지하 바다(Below Ocean or Apšū)를 가리킨다. 그리고 파생적으로 "모든 것"의 의미하기도 한

외한 모든 토판들에 남아 있기 때문에, 학자들은 표준 버전 토판들의 순서, 그 안에 담긴 일화들의 연결 구성을 확정할 수 있게 된다.<sup>5</sup> 반면 고바빌론 버전의 경우 간기가 확인된 토판은 OB II뿐이다.

DUB 2-KAM-ma šu-tu-ur e-li šar-ri 4 šu-ši  
 토판 2 “왕들 중에 뛰어난 자” (270행).

여기에는 길가메시 “시리즈”(ÉŠ.GÁR)라는 말은 없지만 길가메시 고바빌론 버전의 제목인 “왕들 중에 뛰어난 자(šūtur eli šarri)”가 표기되었고, 해당 토판이 그 작품의 두번째 토판이라는 정보가 들어 있다. “토판 2”(DUB 2-kam-ma)라는 말이 시리즈의 개념을 전제하기 때문에 고바빌론 시대에 이미 길가메시를 주인공으로 한 연속적 서사가 존재했다고 추정할 수 있다.<sup>6</sup>

그렇다면 길가메시 서사시의 고바빌론 버전은 어떻게 저작되었을까? 수메르어로 쓰여진 길가메시 사본들이 알려지기 전부터 학자들은

다. 번역가들은 길가메시 서사시 표준 버전의 첫 구절 *ša naqba imuru*를 어떻게 번역해야 할지 고민한다. 이야기 중에 길가메시가 불로초를 얻기 위해 심연에 들어갔다 나왔기 때문에 “심연을 본 자”라는 해석이 타당하지만, 이야기 전체의 관점에서 보면, 모험을 위해 전세계를 구경했다는 의미에서 길가메시에 대해 “모든 것”을 본 자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이다. 두 가지 의미가 모두 의도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George, *The Babylonian Gilgamesh Epic: Introduction, Critical Edition, and Cuneiform Texts*, 444.

5 조지가 표준 버전의 모든 서기관 간기를 한 곳에 정리해 두었다. George, *The Babylonian Gilgamesh Epic: Introduction, Critical Edition, and Cuneiform Texts*, 736-739.

6 고바빌론 버전은 최소 4개의 토판으로 구성되었을 것이다. 서기관 간기를 포함한 OB II가 두번째 토판이기 때문에, 현전하지 않는 제1토판의 존재를 쉽게 가정할 수 있다. 또한, 제2토판의 내용과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예일 토판(OB III)을 제3토판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 두 토판들에 서로 중복되는 내용이 없고, 토판의 크기, 제철, 구성, 문체 등에 있어도 서로 동일하여 한 서기관에 의해 필사된 것으로 여겨진다는 사실도 그런 추정을 뒷받침한다(George, *Gilgamesh Epic: Introduction, Critical Edition, and Cuneiform Texts*, 159). 나아가 예일 토판의 본문이 삼나무 숲으로 여행을 떠나기 직전에서 멈추기 때문에 길가메시와 후와와 괴물의 전투와 불멸 추구 여행을 담은 추가적 토판들을 어렵기 않게 상정할 수 있다.

길가메시 서사시의 기원이 수메르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간다고 생각했다. 그 근거는 길가메시 서사시의 두 주인공의 이름 “길가메시”와 “엔키두”가 수메르어 이름이라는 것과<sup>7</sup> 그 이야기에 등장하는 주요 신들이 수메르 만신전의 신들이라는 사실이다.<sup>8</sup> 1920-30년대에 길가메시 수메르 단편들을 담은 사본들이 알려지고 특히 사무엘 크레이머(Samuel N. Kramer)의 노력으로 1940년대 중반까지 수메르어 사본들에 대한 이해가 증진되면서<sup>9</sup> 학자들은 길가메시 서사시의 아카드 버전이 수메르 단편들에 근거하고 있다고 확신하게 되었다. 현재까지 알려진 수메르어로 된 길가메시 단편들은 모두 다섯 개이다. 이중 <빌가메시와<sup>10</sup> 엔키두

7 길가메시 이름에 대한 논의는 George, *The Babylonian Gilgamesh Epic: Introduction, Critical Edition, and Cuneiform Texts*, 71-90을 참조하고, 엔키두의 이름에 대한 논의는 G. Dossin, “Enkidou dans l’Épopée de Gilgames”, *Bulletin de l’Académie royale de Belgique, Classe des lettres* 42 (1956), 580-593을 참조하라.

8 Samuel N. Kramer, “The Epic of Gilgamesh and Its Sumerian Sources”, *Journal of the American Oriental Society* 64 (1944), 11. 길가메시의 부모인 루갈반다(Lugalbanda)와 닌순(Ninsun)의 이름도 수메르어이다. 엔키두를 창조한 여신 아루루(Aruru)는 수메르 여신 닌마흐/닌후르사그/닌투이며, 하늘 황소를 내어준 안(An)은 수메르의 천신(天神)이다. 엔키두의 죽음을 선포한 신도 수메르 만신전의 최고신 엔릴(Enlil)이며, 홍수 이야기에서 핵심 역할을 하는 신도 모두 수메르 신들이다. 아카드 시인은 일부 수메르 신들의 경우 아카드 이름(샤마쉬, 이쉬타르, 에아 등)을 사용하기도 하지만 길가메시 서사시에 반영된 신학이 수메르 만신전의 것임은 부정할 수 없다.

9 20세기 초에 이미 길가메시에 관한 수메르 사본들이 알려지고 일부 출판되었다. 표준 버전의 제12토포판의 원전(Vortext)으로 알려진 수메르 단편 <빌가메시와 지하세계>가 1909년에 출판되었다. 1913년에는 <빌가메시와 하늘 황소> 일화가 알려졌다. 1914년, 쾨벨(A. Poebel)이 <수메르 홍수이야기>와 <빌가메시와 하늘 황소> 단편을 발표했다. 같은 해, 랭돈(S. Langdon)이 수메르와 후와와 이야기를 번역해 내었다. 그리고 1917년에는 <빌가메시와 아가>가 랭돈에 의해 출판되었으며, 1920-30년대에 더 많은 수메르 편사본들이 알려지게 되었다. 하지만 이 수메르 사본들에 대한 이해를 결정적으로 증진시킨 것은 1940년대에 크레이머가 수행한 연구들이었다. 최근에 텔 하다드(Tell Hadad IV, 고대의 메투란)에서 발견된 수메르 사본들이 길가메시 수메르 단편 연구에 있어 또 하나의 변곡점을 제공했지만, 여전히 이 사본들에 대한 이해는 온전하지 않다. Cf. Joaquín Sanmartín, *Gilgamesh rey de Uruk* (Itorial: Trotta, 2018), 357.

10 길가메시에 대한 표준적 수메르 철자법은 빌가메시(\*bil.ga.mes; \*Giš.bil.ga.mes; \*giš.bil.pab.ga.mes)이다. 서사시의 고바빌론 버전(OB II, III)에서는 길가메시는 \*Giš로 표기되고, 표준 버전에서는 \*Giš.gín.maš로 표기된다. 후자를 ‘길가메시’로 읽는 근거는

그리고 지하세계)는 길가메시 서사시의 제12토판과 동일하다. 다시 말하면 제12토판은 그 수메르 단편에 대한 발췌 번역이다.<sup>11</sup> <빌가메시와 후와와>는 서사시 표준 버전의 제3-5토판의 내용과 연결되어 있으며, <빌가메시와 하늘 황소>는 서사시 표준 버전의 제6토판의 내용과 연결되어 있지만, 표준 버전이 수메르 단편들의 번역이나 기계적 재사용은 아니다. 일화의 큰 줄거리는 유지되지만 세부 사항에서는 많은 차이를 보인다. 한편, <빌가메시의 죽음>과 <빌가메시와 아가>에 상응하는 일화들은 길가메시 서사시에서 발견되지 않는다.<sup>12</sup> 그 수메르 단편들에 포함된 전형적 모티브가 서사시 표준 버전의 다른 문맥에서 재활용될 뿐이다.<sup>13</sup>

방금 언급한 길가메시에 관한 수메르어 단편들은 모두 단일 토판

---

BM 54595 후편 4행(<sup>d</sup>giš.gin.maš = <sup>d</sup>gi-il-ga-meš)이다. 길가메시에 대한 다양한 철자법의 변천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하라: George, *The Babylonian Gilgamesh Epic: Introduction, Critical Edition, and Cuneiform Texts*, chapter 2. 빌가메시가 길가메시의 수메르 발음이라는 주장에 대한 반박을 보려면 다음의 논문을 참조하라: Gonzalo Rubio, "Reading Sumerian Names, II: Gilgameš", *Journal of Cuneiform Studies* 64 (2012), 3-16.

- 11 표준 버전의 제12토판은 <빌가메시와 엔키두 그리고 지하세계>의 후반부에 해당한다. 제12토판은 그 수메르 단편 172-303행에 대한 발췌 번역에 불과하다. 하지만 이 둘 사이의 미세한 차이도 발견된다. 예를 들어, 길가메시가 지하세계에서 갇힌 엔키두를 구하기 위해 신들에게 탄원하는 장면에서, 수메르 버전은 길가메시가 찾아간 신으로 엔릴과 엔키만을 언급한다. 반면, 아카드 서사시에서는 월신 신(Sin)에 대한 기도가 첨가된다. 그러나 이것이 표준 버전이 수메르 단편에 대한 기계적 번역이라는 인상을 상쇄하지는 못한다.
- 12 본 논문에서 사용한 제목들은 모두 현대 학자들이 붙인 것들이다. 고대인들은 그 토판의 첫 구절(incipits)을 따라 제목을 정한다. <빌가메시와 엔키두 그리고 지하세계(BEN)>의 첫 구절 타이틀은 u<sub>4</sub>-ri-a "그 날에"이다. <빌가메시와 후와와(BH)>의 버전 a의 고대 제목은 en.e kur lú.ri.la.še "주께서 산 자의 땅으로"이다. 같은 단편 버전 b의 첫 구절 제목은 i.a.lu4.lu4이다. <빌가메시와 하늘 황소(BBH)>의 고대 제목은 šul.mè.kam "그는 전쟁 영웅이다"이다. <빌가메시와 아가(BA)>의 첫 구절 제목은 lú.kin.gi<sub>4</sub>.a ak.kà "아가의 사절단"이다.
- 13 길가메시에 관한 수메르 단편에 대한 우리말 번역을 보려면, 앤드류 조지, 「인류 최초의 신화 길가메시 서사시」(공경희 옮김), (서울: 현대지성, 2021), 제2부를 참조하라. 원제는 Andrew George, *The Epic of Gilgamesh* (UK: Penguin, 2020).

사본들로 아카드어로 된 길가메시 서사시의 일부만을 반영한다. 이 때문에, 표준 버전과 고바빌론 버전에 대해서 “서사시”라는 장르 명칭을 기꺼이 사용하는 학자들이<sup>14</sup> 길가메시에 관한 수메르 토판들에 대해서는 그 명칭을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그 대신 “이야기”(tale) 혹은 “단편시”(poem), “자료”(source)라는 말을 사용한다.<sup>15</sup> 이 배후에는 크레이머(Samuel N. Kramer)와 마투스(L. Matouš), 그리고 티게이(Jeffrey H. Tigay)의 연구 이후 생성된 학자들의 합의 즉 아카드 길가메시 서사시에 상응하는 수메르 서사시는 없다는 주장이 있다.<sup>16</sup> 본 논문은 그런 학자적 합의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수메르 단편들을 아우르는 수메르 서사시의 존재 가능성에 대해 논의할 것이다.

14 이 때 “서사시”는 편의적 개념이다. 그 장르 명칭은 현대적인 것(etic)으로 길가메시 이야기와 호메로스의 서사 작품 사이의 유사성에 근거해 붙여졌다. 서양 문학사에서 장르에 대한 논의의 시원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시학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서사시를 비극의 관점에서 정의했다: 즉 서사시를 구성의 길이와 운율에 있어 비극과 다른 것으로 정의했다(〈시학〉 1459a 23). 즉 ‘비극’이 아닌 것이 서사가 되었다. 이후 고전학자들은 서사시에 대한 보다 긍정적인 기준들을 제안했다. 예를 들어, 전쟁, 여행, 무용적 주제, 민족/국가적 정체성 부여, 신의 인간사 개입, 문자화 이전의 구두 전승의 유무, 작문 방식(운율) 등을 서사시의 긍정적 기준들로 제시했다. 물론 서사시가 이런 기준들을 모두 만족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기준들의 일정 집합이 ‘고전적’ 서사시와 가족 유사성(family similarity)을 형성하면 그것을 서사시로 인지하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장르 구분이 언제나 특정 세계관을 배경으로 하기 때문에 서양에서 활용된 서사시의 개념을 고대 메소포타미아에 적용 가능할지에 대한 비판이 가능하다. 하지만 고대 메소포타미아인들의 장르 구분과 그 용어들(emic)은 문화사적으로 이해하기 매우 어렵기 때문에(예를 들어 운문의 종류가 그것이 공연될 때 사용된 악기의 종류에 따라 분류됨), 고대 문학 작품들을 연구하는데 있어 현대적 장르 구분을 적용하는 것이 발견적 가치를 가질 수 있다. 이 때문에 주지하다시피 고대 근동 학자들이 고전학과 성서학의 장르 개념을 그들의 연구 대상에 적용해 왔다. Cf. Gadotti, *Gilgamesh, Enkidu and the Netherworld and the Sumerian Gilgamesh Cycle*, 93-95.

15 Gadotti, *Gilgamesh, Enkidu and the Netherworld and the Sumerian Gilgamesh Cycle*, 93.

16 Kramer, “The Epic of Gilgamesh and Its Sumerian Sources”, 7-23; L. Matouš, “Les Rapports Entre La Version Sumérienne et La Version Akkadienne de l’épopée de Gilgamesh”, P. Garelli(ed.), *Gilgamesh et Sa Légende* (Paris: Librairie C. Klincksieck, 1958), 83-94; Jeffrey H. Tigay, *The Evolution of the Gilgamesh Epic* (Wauconda: Bolchazy-Carducci Publishers, 2002).

## 2. 수메르어로 된 길가메시 서사시가 존재했는가?

### 1) 부정 입장

수메르 단편들에 대한 초기 연구가들은 이 질문에 긍정적으로 대답했다. 모리스 재스트로(M. Jastrow)는 1920년에 출판된 책 <길가메시 서사시의 고바빌론 버전>에서 더 많은 수메르 단편들이 출토되어야 확실히 알 수 있다는 단서를 달면서도, “아카드 버전보다 선행한 수메르 서사시가 존재했다고 믿을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한다.<sup>17</sup> 하지만 이런 주장에 대한 직접적 근거는 제시하지 못한다. 다만 <이쉬타르의 지하세계 강하> 혹은 <아트라하시스> 등의 아카드 서사에 상응하는 수메르 버전들이 존재함을 지적하면서 길가메시 아카드어 버전도 그에 상응하는 수메르 서사시를 전제하고 있을 것이라 추정할 뿐이다.<sup>18</sup> <빌가메시와 하늘 황소>(1914년)와 <빌가메시와 아가>(1917년)를 최초 번역 출판한 랭돈(S. Langdon)도 비슷한 주장을 폈다.<sup>19</sup> 그의 주장에 따르면 길가메시에 관한 수메르 단편들도 아카드 서사시의 일화들처럼 일정한 순서로 배열되어 하나의 서사시를 구성한다.<sup>20</sup> 랭돈은 수메르 서사시의

---

17 M. Jastrow, *An Old Babylonian Version of the Gilgamesh Epic on the Basis of Recently Discovered Texts*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1920), 13.

18 Jastrow의 추정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간다. 수메르 길가메시 서사가 아카드 버전과 동일한 일화들의 동일한 구성은 아닐 것이라 말하면서, 심지어 수메르 서사에 담긴 일화들이 아카드 사람들로부터 배운 것일 가능성도 제안한다. 예를 들어, 길가메시가 삼나무 숲에서 괴물을 만나는 일화는 그 기원이 수메르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즉 수메르 서사시의 저자는 그것을 구성하는 일화들의 일부를 셈족(아무루 혹은 아카드)에게서 빌어왔다는 것이다. Jastrow, *An Old Babylonian Version of the Gilgamesh Epic on the Basis of Recently Discovered Texts*, 14.

19 Samuel N. Kramer, “The Epic of Gilgameš and Its Sumerian Sources”, *Journal of the American Oriental Society* 64 (1944), 12.

20 S. Langdon, “The Sumerian Epic of Gilgamish”, *The Journal of the Royal Asiatic Society of Great Britain and Ireland* 4 (1932), 912.

기본 플롯을 바빌로니아와 아시리아의 시인이 그대로 채용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아카드 서사시가 수메르 서사시의 기계적인 모방은 아니며, 아카드 시인들이 수메르 서사시의 플롯과 내용을 새로운 방식으로 증강, 각색하여 위대한 작품을 만들었다고 덧붙인다.<sup>21</sup> 나아가 그는 수메르 자료들이 더 발견되어야 전모가 밝혀질 수 있다는 단서를 달았지만 “수메르 서사시는 약 200행을 가진 네다섯 개의 토판”으로 구성되었다고 명시한다.<sup>22</sup> 이런 초기 주장들의 약점은 수메르 서사시의 존재에 대한 보다 실질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주장이 가능했던 이유는 수메르 단편들이 막 세상에 알려지던 때였기 때문에 ‘더 많은 단편들이 알려지면’이라는 단서가 작동할 수 있었다.

하지만 그런 주장은 크레이머(S. N. Kramer)의 1944년 논문, “길가메시 서사시와 그 수메르 자료들”에 의해 크게 도전을 받는다.<sup>23</sup> 이 논문에서 크레이머의 주된 관심은 수메르 단편들과 길가메시 서사시의 관계이다. 그는 수메르 단편들의 내용을 아카드 서사시와 비교하며 후자가 전자를 자료(source)로 사용하였지만 서사시의 기본적 플롯과 주제는 아카드 시인의 독창적인 기여라고 결론 내린다. 그는 수메르 단편들이 별도의 수메르 서사시를 형성했는지의 문제도 제기한다. 하지만 이 문제에 대한 크레이머의 대답은 다소 피상적이다. 수메르 서사시의 부재에 대해 그가 제시한 근거도 그다지 설득력이 없다. 다음은 크레이머의 말이다.<sup>24</sup>

21 Langdon, “The Sumerian Epic of Gilgamesh”, 912.

22 Langdon, “The Sumerian Epic of Gilgamesh”, 912.

23 Kramer, “The Epic of Gilgamesh and Its Sumerian Sources”, 7-23.

24 Kramer, “The Epic of Gilgamesh and Its Sumerian Sources”, 18.

Is there a Sumerian original of the Babylonian Epic of Gilgameš as a whole? Obviously not. **The Sumerian poems vary considerably in length, and consist of individual, disconnected tales.** The plot sequence of the Babylonian epic by means of which the several episodes are so modified and connected as to form a reasonably integrated unit, is clearly a Babylonian innovation and achievement. (볼드체 부분은 필자의 강조)

크레이머의 말을 우리말로 번역하지 않고 영문으로 그대로 인용한 이유는 그것이 논문 전체에서 크레이머가 수메르 서사시의 부재에 대한 근거로 제시한 유일한 문장이기 때문이다. 크레이머는 “길가메시의 바빌론 서사시의 수메르어 원전이 존재하는가?”라고 질문하고 “그런 것 같지 않다”(obviously not)고 대답한다. 그 이유(위 인용에서 볼드체 처리된 부분)는 수메르 단편들의 길이가 일정하지 않고, 단편의 내용들도 개별적이고 서로와 연관이 약하다는 것이다. 자신이 제시한 이유가 궁색하다고 여겼는지 크레이머는 이어지는 문장에서 논문 전체의 주제를 반복한다. 즉 다양한 일화들을 하나의 유기체로 통합시키는 서사의 플롯은 아카드 시인의 독창적 업적을 강조한다. 1958년, 마투스(L. Matouš)의 논문이<sup>25</sup> 나오지 않았더라면 크레이머의 주장이 학계의 표준이 되지는 못했을 것이다. 길가메시 서사시의 형성 역사에 대한 중요한 연구를 출판한 티게이(J. Tigay)도 크레이머의 주장에 대해 “이런 주장은 그 자체로 결정적이지는 않다. 왜냐하면 수메르 단편들의 길이가 일정하지 않다는 것은 그들이 서로 무관하다는 증거가 될 수 없으며, 그 단편들의 내용이 개별적이라고 주장하려면 좀더 구체적인 증거가 있어야

---

25 L. Matouš, “Les Rappports Entre La Version Sumérienne et La Version Akkadienne de l'épopée de Gilgameš”, 83-94.

한다”고 평가한다.<sup>26</sup>

마투스는 1958년 7차 국제 아시리아 학회(Recontre Assyriologique Internationale)에서 발표한 논문에서 길가메시 수메르 단편들이 서로 무관한 독립적 작품임을 증명하는 구체적 증거 두 가지를 제시한다. 첫째, 그는 수메르 ‘문학 목록’(literary catalogue)을 인용한다. 이 문서가 학교 도서관의 특정 구역에 보관된 책들 목록인지 아니면 학교 교과 과정에 관한 것인지 논쟁이 있지만 그 목록에 ‘머릿글 타이틀’(incipits)으로 열거된 작품들은 어떤 작품의 일부가 아닌 독립적인 작품으로 존재했다는 주장이다.<sup>27</sup> 마투스는 논문에서 ‘문학 목록’에 인용된 수메르 단편으로 〈빌가메시와 엔키두 그리고 지하세계(BEN)〉, 〈빌가메시와 아가(BA)〉 그리고 〈빌가메시와 후와와(BH)〉를 지적했지만, 그후 추가로 〈빌가메시와 하늘 황소(BBH)〉도 ‘문학 목록’에 수록되었음이 밝혀졌다.<sup>28</sup> 다음은 수메르 ‘문학 목록’들에 실린 수메르 단편들을 정리한 것이다. 아래 표에 따르면 〈빌가메시의 죽음(DB)〉를 제외하고 나머지 네 편의 수메르 단편들이 수메르 문학 목록에 수록되어 있으며, 마투스의 논리에 따르면, 적어도 네 편의 단편들은 독립적으로 유통된 작품이다.<sup>29</sup>

---

26 Jeffery H. Tigay, “Was There an Integrated Gilgamesh Epic in the Old Babylonian Period?”, Maria de Jong Ellis(ed.), *Essays on the Ancient Near east in Memory of Jacob Joel Finkelstein* (Hamden: Archon Books, 1977), 27.

27 Matouš, “Les Rappports Entre La Version Sumérienne et La Version Akkadienne de l'épopée de Gilgamesh”, 88.

28 Jeremy Black et al., *The Literature of Ancient Sumer*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4), 302, 11행 참조.

29 마투스가 인용한 문학 목록에 대한 비평본과 번역을 보려면 다음의 논문과 책을 참조하라: Samuel N. Kramer, “The Oldest Literary Catalogue: A Sumerian List of Literary Compositions Compiled about 2000 B.C.”, *Bulletin of the American Schools of Oriental Research* 88 (1942), 10-19. Jeremy Black et al., *The Literature of Ancient Sumer*, 301-304.

표 1. 문학 목록 속 수메르 단편들<sup>30</sup>

	Nippur1	Ur1	Ur2	Louvre <sup>31</sup>
BEN	7(혹은 20) <sup>32</sup>		(29)	7(혹은 14)
BHa	10	14	9	10
BHb	14	16	10	38
BBH	11		11	37
BA	12		12	
DB				

마투스가 제시한 두번째 증거는 송영적 결말과 신화적 서론이다.<sup>33</sup> 예를 들어, BEN은 본격적 서사의 시작에 앞서 신화를 서술한다. 안(An), 엔릴(Enlil), 에레스키갈(Ereshkigal)이 각각 하늘과 땅, 지하세계를 자신의 통치 영역으로 나누는 장면, 엔키(Enki)가 자신의 거처 압수(Apsu)로 내려가다 폭풍을 만난 장면이 나온 후, 길가메시에 얽힌 서사가 시작된다. 그런 신화적 서론을 가진 BEN는 길가메시에 대한 송영(zà-mí-zu dùg-ga-àm “당신의 찬양은 달콤합니다”)으로 끝난다.<sup>34</sup> 특정 작품

30 가도티가 정리한 표를 다소 수정한 것이다. Cf. Gadotti, “The Sumerian Gilgamesh Cycle”, 106.

31 루브르 토판(AO 5393)은 서기관 간기에 “우르의 왕 기밀신에 대한 찬양시”(A hymn in honor of Gimil(sic!)-Sin, king of Ur)라는 제목으로 소개되지만 그 내용은 다른 도서관 문학 토판들과 거의 일치한다. 네 칼럼 토판으로 모두 68개의 책 제목이 담겨있으며, 그 중 43개가 다른 문학 목록 토판에도 수록되어 있다. 이 문학 목록에 등재된 것 중 별도의 토판으로 현전하는 작품은 28개이다. Cf. Kramer, “The Oldest Literary Catalogue”, 12.

32 숫자는 목록에서 몇 번째에 등재되었는지를 나타낸다. BEN의 첫 구절이 적어도 세 개의 다른 수메르 문학과 일치하기 때문에 순서를 확정할 수 없다.

33 Matouš, “Les Rapports Entre La Version Sumérienne et La Version Akkadienne de l’épopée de Gilgamesh”, 87.

34 Matouš, “Les Rapports Entre La Version Sumérienne et La Version Akkadienne de l’épopée de Gilgamesh”, 88.

이 송영으로 끝난다면 다른 작품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뜻이고 특정 작품이 신화적 서론으로 시작한다면 다른 작품이 그것을 선행하지 않는다는 의미일 것이다. 마투스의 견해에 <빌가메시와 엔키두 그리고 지하세계>는 보다 큰 서사의 일부가 아니라 독립적인 작품이다.

후대의 학자들이 마투스의 논문을 크레이머의 주장에 실질적 증거를 제공한 것으로 평가하지만, 역설적이게도 마투스 논문의 핵심 주장은 “몇몇의 노래들로 구성된 긴 서사 시리즈”(une longue série épique en plusieurs chants)가 수메르어로 존재했다는 것이다.<sup>35</sup> 마투스의 재구성에 따르면 그 ‘수메르 서사시’는 길가메시가 삼나무 숲으로 여행하여 후와와를 죽이는 일화로 시작되어 인안나의 하늘 황소 일화로 이어지고 엔키두의 죽음으로 마무리되는 연속물(cycle)이다.<sup>36</sup> 즉 마투스는 수메르 단편 중 일부만(BH, BBH, BEN)이 서사시의 일부이고 나머지 일부는 독립적 작품임을 주장한다.<sup>37</sup> 수메르 단편들을 이처럼 두 그룹으로 나누기 위해 제시한 기준이 앞서 논의한 것들이다. 하지만 수메르어로 된 서사시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기 원하는 학자들은 마투스가 특정 수메르 단편들이 독립적임을 증명하기 위해 활용한 기준들을 조금 다른 용도로 사용한다. 즉 수메르 서사시가 없었음을 주장하기 위한 증

35 Matouš, “Les Rapports Entre La Version Sumérienne et La Version Akkadienne de l'épopée de Gilgames”, 90.

36 Matouš, “Les Rapports Entre La Version Sumérienne et La Version Akkadienne de l'épopée de Gilgames”, 93. 이와 관련해 마투스는 랭돈의 글을 호의적을 인용한다(p. 84). 하지만 마투스가 수메르 단편 <빌가메시 엔키두 그리고 지하세계>의 신화적 서론을 근거로 그 단편이 독립적 작품일 것이라고 말한 다음(p. 87) 그가 재구성한 수메르 서사의 마지막 부분이 <빌가메시 엔키두 그리고 지하세계>인 것은 모순처럼 보인다.

37 마투스가 이런 주장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에게 알려진 수메르 사본들의 상황과 연관되어 있다. 하지만 마투스가 독립적 작품에 대한 근거로 제시한 기준들을 그후 추가로 발견된 사본들에 일관되게 적용하면 ‘수메르어 서사시’가 존재했다는 마투스의 결론은 유지하기 힘들다. 후대의 학자들은 마투스의 논문에서 결론은 거부했지만, 그가 독립적인 단편과 서사시의 일부를 구성한 단편을 나눌 때 사용한 준거들은 여전히 유효한 것으로 인정한다.

거로 사용한다.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마투스가 논문을 출판한 이후 중요한 사본들이 추가로 발견되어 수메르 단편들에 대한 이해가 높아지면서, 마투스의 기준이 확대 적용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즉 수메르 단편의 일부가 아니라 5편 모두가 송영으로 끝남이 밝혀졌고, <빌가메시의 죽음>을 제외한 모든 수메르 단편들이 문학 목록에서 확인되었다.<sup>38</sup> 이것은 수메르 서사시의 존재에 대한 긍정 증거(예를 들어, 고바빌론 Pennsylvania 토판의 서기관 간기, 표준 토판들의 서기관 간기와 같은 증거)의 물리적 부재와 함께, 수메르 시대에 길가메시에 관한 단편들만 존재했다는 주장에 힘을 실어 주었다. 그 후 티게이(J. Tigay), 조지(A. George)와 같은 중요한 메소포타미아학 학자들(Assyriologists)이 크레이머의 주장을 받아들이면서,<sup>39</sup> 현재는 대다수 학자들이 길가메시 서사시에 상응하는 수메르 버전은 없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1990년대 메투란에서 출토된 문헌들이 빌가메시 단편들에 대한 이해를 크게 증진시켰고, 2000년대에 수메르어와 메소포타미아 문학 이론에 대한 연구도 정교화되었다.<sup>40</sup> 이때문에 수메르 서사시의

38 Tigay, *The Evolution of the Gilgamesh Epic*, 27.

39 이들이 기존의 논의에 새로운 증거를 제시하지는 않았다. 다만 크레이머의 결론을 마투스의 논증과 함께 받아들인다.

40 A. George, "The Epic of Gilgamesh: Thoughts on Genre and Meaning", J. Azize (ed.), *Gilgamesh and the World of Assyria. Proceedings of the Conference Held at Mandelbaum House, the University of Sydney* (Leuven, 2004), 37-67; Andrew George, *The Babylonian Gilgamesh Epic: Introduction, Critical Edition, and Cuneiform Text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3); T. Holm, "Literature", D. M. Snell (ed.), *A Companion to the Ancient Near East* (Oxford: Blackwell, 2005), 253-65; P. Michalowski, "Carminative Magic. Towards an Understanding of Sumerian Poetics", *Zeitschrift Für Assyriologie Und Vorderasiatische Archäologie* 71 (1981), 1-18; P. Michalowski, "Maybe Epic: The Origins and Reception of Sumerian Heroic Poetry", D. Donstan (ed.), *Epic and History* (Malden, MA: Blackwell, 2010), 7-25; P. Michalowski, "Sumerian Literature: An Overview", Jack M. Sasson (ed.), *Civilizations of Ancient Near East* (Peabody, MA.: Hendrickson Publishers, 1995), 2279-91; N. C. Veldhuis, *Religion, Literature and Scholarship: The Sumerian Composition "Nanše and the Birds"* (Leiden: Brill, 2004).

유무에 대한 질문을 다시 한번 제기할 필요가 생겨났다.<sup>41</sup> 수메르 서사시의 존재에 대해 긍정적으로 대답한 학자들이 적지만 존재해 왔다. 이미 언급한 마투스 이외에, 빙(J. D. Bing), 팔켄슈타인(A. Falkenstein), 그리고 가장 최근에 가도티(A. Gadotti)가 수메르어로 된 중편 서사시의 존재를 주장했다.<sup>42</sup> 그러면 지금부터 수메르 서사시의 존재에 대한 다양한 직접, 간접 증거들을 살펴보자.

## 2) 긍정 입장

### (1) 수메르 증거

아카드어로 된 길가메시 서사시에 비견될 수 있는 서사시가 수메르 시대에 존재하지 않았다는 주장의 근거는 크게 세 가지다. 첫째는 현전하는 수메르 단편들 모두가 송영(doxology)으로 끝난다는 사실이다.<sup>43</sup> 많은 학자들이 본문 끝에 쓰인 송영을 그 본문이 종료되었다는 표지로 파악한다. 필자의 판단에는 이 주장은 엄밀성이 떨어진다. 송영적 결말이 의미하는 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수메르 문학의 창작과 전승에서 서전과 구전의 상호 작용 — 다시 말해 서전이 구전을 배경으로 한다

41 A. Gadotti, *Gilgamesh, Enkidu and the Netherworld and the Sumerian Gilgamesh Cycle*, 98.

42 Matouš, “Les Rappports Entre La Version Sumérienne et La Version Akkadienne de l'épopée de Gilgameš,” 83-94; J. D. Bing, “On the Sumerian Epic of Gilgamesh,” *Ancient Near Eastern Studies* 7 (1975): 1-11; A. Falkenstein, “Gilgameš. A. Nach Sumerischen Texten,” in *Reallexikon Der Assyriologie*, ed. Erich Ebeling, vol. 3 (Berlin: Water de Gruyter, 1957), 357-64; Gadotti, *Gilgamesh, Enkidu and the Netherworld and the Sumerian Gilgamesh Cycle*.

43 수메르 단편 본문의 끝에 나오는 송영의 내용을 보려면 다음의 글을 참조하라: George, *The Babylonian Gilgamesh Epic: Introduction, Critical Edition, and Cuneiform Texts*, 8-15. 수메르 단편의 송영들에 대한 유형적 분석은 다음의 논문을 참고하라. Black, “Some Structural Features of Sumerian Narrative Poetry”, Marianna E. Vogelzang(ed.), *Mesopotamian Epic Literature: Oral or Aural?* (Lewiston: The Edwin Mellen Press, 1992), 74.

는 사실 — 을 고려해야 한다. 대부분의 수메르 학자들은 수메르 서사가 공연의 환경에서 창작되었다는 데에 동의한다.<sup>44</sup> 블랙(J. Black)은 서전 본문에 들어 있는 구전적 요소를 몇 가지로 정리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송영적 결말이다. 블랙에 따르면 송영은 두 가지 종류로 나뉜다. 하나가 송영의 대상이 ‘글쓰기의 신’ 니사바(Nisaba)인 서기적 송영(scribal doxology)이다: “Nisaba zà-mí “니사바를 찬양하라.” 이 서기적 송영은 공연의 일부로 낭송되지 않는다. 반면 송영의 대상이 신이나 서사의 주인공인 경우가 있다. 이 종교적 송영은<sup>45</sup> 공연의 일부로 가수가 그 말을 함으로써 공연의 끝을 알린다. 길가메시 수메르 단편들은 전부 ‘신/길가메시 + zà-mí’의 기본 형식을 가진다.<sup>46</sup> 이것은 빌가메시 단편의 송영적 결말이 공연 행위의 끝을 알려줄 뿐, 반드시 공연된 서사의 고립적 성격을 보여주는 것이 아님을 시사한다.

이것을 확증시켜 주는 실질적 증거가 있다. 보통 서전에서 토판 간의 연속 관계를 표현하는 방식이 선행 토판의 끝 문장으로 다음 토판의 첫 문장을 삼는 것이다. <빌가메시와 엔키두 그리고 지하세계(BEN)>의 메투란 버전은 불에 타 죽은 사람의 운명 — 그는 영혼은 연기처럼 사

44 이런 주장에 대한 예외는 루비오(Gonzalo Rubio)이다. 그는 수메르 문학의 기원을 수메르 실용 문서였던 ‘목록(list)’에서 찾는다. 하지만 그가 구전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G. Rubio, “The Inventions of Sumerian: Literature and the Artifacts of Identity,” G. Rubio(ed.), *Problems of Canonicity and Identity Formation in Ancient Egypt and Mesopotamia* (Copenhagen: Univeristy of Copenhagen, 2016), 231-58; G. Rubio, “Early Sumerian Literature: Enumerating the Whole”, in *De La Tablilla a La Inteligencia Artificial: Homenaje al Prof. Jesús-Luis Cunchillos En Su 65 Aniversario*, ed. A. G. Blanco (Zaragoza: Zaragoza, n.d.), 197-210.

45 블랙(J. Black)은 ‘종교적 송영’이라는 말은 사용하지 않지만 이야기의 주인공이나 주인공을 도운 신에 대한 경건한 찬양이라는 점에서 ‘서기적 송영’과 대조되는 말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46 <빌가메시와 후와와> 버전 a의 님푸르 사본에서는 종교적 송영과 서기적 송영이 함께 사용된다. George, *The Babylonian Gilgamesh Epic: Introduction, Critical Edition, and Cuneiform Texts*, 10. 님푸르 이외의 지역 전통에서는 후와와와 엔키두에 대한 송영도 증거된다.

라질 것임 — 에 절망한 빌가메시가 “산 자의 땅”(kur lú til-la-še)으로 여행을 결심하는 구절로 끝나는데, 동일한 구절이 수메르 단편 〈빌가메시와 후와와(BH)〉의 시작 부분에서 반복된다.

En-e kur lú til-la-še ġeštug-ga-ni na-an-gub  
주께서 그의 마음을 산 자들의 땅으로 향하게 했다.<sup>47</sup>

가도티(A. Gadotti)는 이런 기법을 “catch-line”이라 부르고 BEN이 BH와 연결된 서사를 구성하는 증거라고 주장한다. 가도티에 따르면 지하세계 즉 “돌아올 수 없는 땅”(kur nu-gi<sub>4</sub>-a, 지하세계의 다른 이름)에 대한 엔키두의 묘사에 절망한 빌가메시(BEN)가 “산 자의 땅”(kur lú til-la-še)으로 생각을 돌리는 것(BH)은 좋은 서사적 전환으로 보인다.<sup>48</sup> 앞서 우리는 다른 빌가메시 단편들처럼 BEN의 우르 토판도 송영으로 끝남을 지적했다. 하지만 캐치라인 수사법(修辭法)은 송영으로 끝나는 BEN이 다른 단편들과 고립되어 존재하는 것이 아님을 암시한다. 송영적 결말은 그저 구술 공연이 종결되었음을 의미할 뿐이다.

둘째, 수메르 문학 목록(Literary catalogue)에 등재되었다는 사실이 반드시 그것이 독립적, 고립적 단편임을 증명하지는 않는다(contra Matouš and Tigay).<sup>49</sup> 수메르 문학 목록이 작성된 배경을 살펴보자. 우르 3왕조 시대에 이미 다양한 장르의 문학 작품들 — 서사, 신화, 신전 찬양, 왕실 찬양, 애가, 잠언 등 — 이 창작되었다. 비록 이 문학 작품들은 좀 더 후

47 George, *The Babylonian Gilgamesh Epic: Introduction, Critical Edition, and Cuneiform Texts*, 770, 음역과 번역은 조지의 것을 참조했음.

48 Gadotti, *Gilgamesh, Enkidu and the Netherworld and the Sumerian Gilgamesh Cycle*, 104.

49 티게이(J. Tigay)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빌가메시와 후와와〉 버전 A와 〈빌가메시와 엔키두 그리고 지하세계〉는 수메르 문학 목록에서 별도의 작품으로 등재되어 있다. 이런 사실들은 수메르 단편들이 독립적 단편들로 시작되었음을 보여준다.” Tigay, “Was there an Integrated Gilgamesh Epic in the Old Babylonian Period?”, 216.

대인 고바빌로니아 시대에 필사된 토판으로 전해지지만 상당수가 3천 년기에 이미 창작되고 문서화 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sup>50</sup> 고바빌로니아 시대에는 신전 도서관과 학교에서 다양한 장르의 수메르 문학 작품이 다양한 크기, 모양의 토판에 필사되고 전승되었다. 당시에 이 수메르 토판들을 관리하는 서기관들은 참조나 정리를 위해 소장 문학 작품들의 목록을 작성했다.<sup>51</sup> 바로 이것이 소위 수메르 “문학 목록”(Literary Catalogue)이다. 표 2에 따르면 닙푸르와 우르의 학교 도서관에서 발견되었다. 학자들은 이 목록의 목적에 대해 엇갈린 견해를 보인다. 일부는 그것이 학교 교육의 커리큘럼이었다고 주장한다.<sup>52</sup> 특히 다양한 목록들 사이에 처음 10개의 항목은 매우 일정한데 델네로(P. Delnero)는 박사학위 논문에서 그것을 데카드(The Decad)로 부른다.<sup>53</sup> 마지막 열 번째 책이 〈벨가메시와 후와와〉이다. 고바빌론 학교에서 이 토판의 사본들이 가장 많이 발견된 것이 우연이 아니다. 다른 학자들은 교육 과정이 아니라 도서관의 문서 바구니(오늘날 ‘책장’)나 특정 구역에 보관된 문서들을 열거

50 B. Alster, “Interaction of Oral and Written Poetry in Early Mesopotamian Literature”, Marianna Vogelzang(ed.), *Mesopotamian Epic Literature: Oral or Aural* (Lewiston: The Edwin Mellen Press, 1992), 60; Gadotti, *Gilgamesh, Enkidu and the Netherworld and the Sumerian Gilgamesh Cycle*, 98; Samuel N. Kramer, “The Oldest Literary Catalogue: A Sumerian List of Literary Compositions Compiled about 2000 B.C.”, *Bulletin of the American Schools of Oriental Research* 88 (1942), 11; J. Sanmartín, *Gilgameš Rey de Uruk* (Itrorial: Trotta, 2018), 325.

51 Kramer, “The Oldest Literary Catalogue: A Sumerian List of Literary Compositions Compiled about 2000 B.C.”, 10-12.

52 Black et al., *The Literature of Ancient Sumer*, 301.

53 문학 문서로 구성된 ‘데카드(the Decad)’는 고바빌론 시대 서기관 학교의 고급 과정의 커리큘럼이다. 여기에 포함된 문학 작품들은 다음과 같다: ‘술기 찬양시’ A, ‘리피트-이쉬타르 찬양시’ A, ‘호미의 노래’, ‘인안나의 등극’ B, ‘엔릴 찬양’, ‘케쉬 신전 찬양’, ‘엔키의 니브루 여행’, ‘인안나와 에비흐’, ‘눈갈 찬양’ A, 길가메시와 후와와 A.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델네로의 학위 논문 제 4장을 참조하라: P. Delnero, “Variation in Sumerian Literary Compositions: A Case Study Based on the Decad” (Ph.D Dissertation: The University of Pennsylvania, 2006).

한 것이라 주장한다. 샤르팽(Charpin)은 우르에서 발견된 문학 목록(Ur1)이 두 개의 문서 바구니에 담긴 책들의 목록이라고 주장한다.<sup>54</sup> 후에 델네로도 그의 박사 논문 주장을 뒤집고, 님푸르와 루브르 버전의 문학 목록이 도서관 인벤토리(inventory) 목록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sup>55</sup> 만약 후자의 주장이 옳다면 수메르 문학 목록은 고바빌론 시대 서기관의 책 수납에 대한 관행을 보여주는 것이지, 그것 자체가 길가메시에 관한 중편 혹은 장편 서사가 존재했는지 여부는 말해주지 않는다.<sup>56</sup>

문학 목록에 별도의 작품으로 등재되었다고 반드시 별도의 서사는 아님을 보여주는 보다 실질적 증거는 루갈반다 서사시다. 루갈반다와 관련된 수메르 단편 두 개가 문학 목록에 별도 항목으로 기재 되어 있다: 우르의 문학 목록(Ur2)에서 <루갈반다와 동굴>는 37행에, <루갈반다와 안주 새>는 39행에 등재되어 있다. 또한 루브르 버전(AO5393)에서는 각각 22행과 23행에 등재되어 있다. 그렇다고 이 두 이야기가 내용면에서 연속적인 하나의 중편 서사라는 사실을 부정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따라서 고바빌론 시대의 문학 목록에 빌가메시 단편들이 별도로 등재되었다는 사실에 근거해 그것들이 서로 독립적인 글이며 그들을 묶는 종합적 서사가 (구전이든 서전이든) 존재하지 않았다고 주장할 수 없다.<sup>57</sup> 더구나 이 문학 목록에서 길가메시의 수메르 단편들은 서로 몰려 기재되어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표 2>에 따르면 님푸르와 우르

54 D. Charpin, *Le Clergé d'Ur Au Siècle d'Hammurabi (XIXe-XVIIIe Siècle AV. J. -C)* (Paris: Droz, 1986); Gadotti, *Gilgamesh, Enkidu and the Netherworld and the Sumerian Gilgamesh Cycle*, 107에서 재인용.

55 P. Delnero, "Sumerian Literary Catalogues and the Scribal Curriculum", *Zeitschrift Für Assyriologie Und Vorderasiatische Archäologie* 100 (2010), 32-55.

56 Gadotti, *Gilgamesh, Enkidu and the Netherworld and the Sumerian Gilgamesh Cycle*, 107.

57 A. Gadotti, "Gilgamesh, Enku and the Netherworld and the Sumerian Gilgamesh Cycle" (Ph. D. Dissertation: The Johns Hopkins University, 2005), 170-71.

의 문학 목록에서 BHa, BHb, BBH, BA가 10-14행에 밀집해 있다. 배열 순서가 서사의 순서는 아니지만 문학 목록에서 주제가 비슷한 작품들이 모여 있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sup>58</sup> 길가메시 수메르 단편들이 서로 군집해 있는 것은 그들을 하나의 주제로 묶은 서사의 존재를 암시한다.

세째, 수메르 단편들 뒤에 수메르 서사시가 없다고 주장하는 학자들의 마지막 보루는 어떤 수메르 토판에도 그것들이 길가메시 서사 “시리즈”에 속함을 나타내는 서기관 간기가 없다는 것이다. 길가메시 서사시 고바빌론 토판이나 표준 토판들의 서서관 간기에는 해당 토판들이 하나의 시리즈에 속한다는 증거가 있다(ÉŠ.GÁR, 혹은 DUB x-Kam).<sup>59</sup> 따라서 수메르 단편의 간기에 그런 정보가 표기되어 있지 않다는 것은 수메르 단편들이 시리즈로 존재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고 주장한다.<sup>60</sup> 하지만 증거의 부재에 의한 논증은 증명의 부담을 상대에게 넘기는 것이기 때문에 언제나 설득력이 약하다. 새로운 발견에 의해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길가메시 수메르 서사시가 구술 공연의 형태로만 존재했을 가능성을 고려하면 증거의 부재는 그것이 없었다는 증거가 될 수 없다.<sup>61</sup>

58 Gadotti, *Gilgamesh, Enkidu and the Netherworld and the Sumerian Gilgamesh Cycle*, 171; Black et al., *The Literature of Ancient Sumer*, 301.

59 앞서 “들어가는 말”의 논의를 참조하라.

60 어느 학자도 이렇게 노골적으로 표현하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언제나 어떤 것의 ‘부재’를 증거로 제시하는 주장은 그것을 논의의 암묵적 전제로 삼기 때문이다. 증명의 부담을 그것의 존재를 주장하는 사람에게 지우는 전략이다.

61 플레밍(Daniel E. Fleming)과 밀스테인(Sara J. Milstein)의 연구가 그런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그들은 고바빌론 시대 아카드어로 길가메시에 관해 쓰여진 단일 칼럼의 “발췌 토판”들을 연구한다. 이 학생 연습 토판과 함께 여섯 칼럼으로 된 도서관 토판들도 발견되어서, 학자들은 이 “발췌 토판”들은 도서관 토판에서 가져온 본문이라 추정했다. 하지만 플레밍과 밀스테인은 그 발췌 토판들이 서사시 이전 단계의 (길가메시의 삼나무 숲 여행에 관한) 아카드 단편의 발췌문물이라고 주장한다. 이 주장이 옳다면 고바빌론 시대에는 아카드어로 된 길가메시 단편과 길가메시 서사시가 공존하였던 것이다. 그렇다면 우르 3왕조 시대에 수메르 단편들과 수메르 서사시가 공존했을 가능성을 배제하는 것은

수메르 단편들을 묶는 종합적 서사의 존재를 암시해 주는 정확한 증거들이 하나 더 있다. 그것은 〈빌가메시의 죽음〉의 메투란 사본에 언급된 길가메시의 업적 목록을 들 수 있다. 길가메시의 운명을 의제로 한 신들의 회의에서 길가메시의 생애 업적이 다음과 같이 나열된다.

- 52 inim-ba ḥar-ra-an di-id-bi-a a-na àm-me-a-bi  
 53 <sup>65</sup>erin ḡiš dili kur-bi ga-an-e-dè  
 54 <sup>66</sup>ḥu-wa-wa tir-bi-ta saḡ ḡiš ra-ra-za  
 55 na-rú-a u<sub>4</sub>-ul-lá-šè me-gub-gub-bu-uš me-da- u<sub>4</sub>-šè  
 56 é diḡir-re-e-ne ki ḡar-ḡar-ra-a-ba  
 57 zi-u<sub>4</sub>-sù-taṣ-aš ki-bi-a saḡ im-ma-ni-ti  
 58 me ki-en-gi-ra-ke<sub>4</sub> ki u dba-ḥa-la-me-eš x xx  
 59 á-ág-gá bu-lu-ṭa kalam-ma-aš im-ta-a-ni  
 60 šu-luḥ ka-luḥ x x si mu-un-si-sá-e<sup>62</sup>

- 52 이 사안: 모든 길을 전부 가본 것.  
 53 그 삼나무 그 독특한 나무를 산에서 가져온 것.  
 54 후와와를 그의 숲에서 죽인 것  
 55 미래를 위해 영원히(?) 석비를 세운 것  
 56 신들의 집들을 세운 것  
 57 지우수드라를 그의 집으로 찾아간 것  
 58 영원히 잊혀진 수메르의 메를 그 땅에 가져온 일  
 59 계명과 의례들  
 60 손 정결례과 입 정결례를 확립한 것.<sup>63</sup>

---

옳지 않다. Daniel E Fleming and Sara J. Milstein, *The Buried Foundation of the Gilgamesh Epic: The Akkadian Huwawa Narrative* (Leiden: Brill, 2010).

- 62 A. Cavigneaux and F. N. H. Al-Rawi, *Gilgameš et La Mort Textes de Tell Haddad VI Avec Un Appendice Sur Les Textes Funéraires Sumériens* (Groningen: Stys Publication, 2000), 27.  
 63 N. C. Veldhuis, "Review Article: The Solution of the Dream: A New Interpretation of Bilgames' Death", *Journal of Cuneiform Studies* 53 (2001). 141, Veldhuis의 번역을 약간 수

현전하는 수메르 단편들에 반영된 업적들과 신들의 회의에서 선포된 길가메시의 업적들을 비교하면 어긋나는 부분이 있다. 이 업적 목록에는 언급되었으나 수메르 단편에는 반영되지 않는 것이 있는가 하면, 수메르 단편에는 언급되었지만 이 목록에는 빠진 업적들도 있다. 예를 들어 〈빌가메시와 아가〉에 언급된 길가메시의 업적 — 키쉬 왕 아가를 무찌른 것 — 은 이 업적 목록에는 없다. 수메르 단편 〈빌가메시와 하늘 황소〉에 언급된 내용 — 길가메시가 하늘 황소를 죽인 일 — 도 신들이 선포한 길가메시의 업적에는 들어있지 않다. 〈빌가메시와 엔키두 그리고 지하세계〉에서 길가메시가 괴물들을 몰아내고 인간나의 보좌와 침대에 사용될 나무를 베어 준 일도 언급되어 있지 않다. 반면 업적 목록에 언급된 “신들의 집을 세운 것”(56행)과<sup>64</sup> 수메르의 메(me)를 확립 시킨 일(58행), 그리고 지우스드라(Ziusudra)를 찾아간 일 등은 수메르 단편들에 언급되지 않는 내용들이다. 가도티(A. Gadotti)는 이런 차이가 길가메시에 대한 수메르 서사시의 존재를 암시한다고 주장한다. 현전하는 수메르 단편들의 내용을 일부 포함하고 또한 토판으로 문자화되지 않은 일화들도 일부 포함한 수메르 서사시가 존재했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sup>65</sup> 그리고 그 서사시는 후대의 아카드 서사시가 철저히 인간주의적 관심을 나타낸 것과 달리 인간과 신들의 관계 혹은 수메르 통치자의 이상적 모습 등과 같은 주제를 표현했을 가능성이 있다.

## (2) 아카드 증거

지금까지 우리는 수메르어로 된 길가메시 서사시의 증거를 수메

정한 것.

64 “신들의 집을 세운 것”이 〈빌가메시와 후와와〉의 버전 b, 20행에 암시되었을 수는 있다.

65 Gadotti, *Gilgamesh, Enkidu and the Netherworld and the Sumerian Gilgamesh Cycle*, 104-5.

르 단편들 안에서 찾았다. 하지만 그 증거는 길가메시 서사시의 표준 버전에서도 발견된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메소포타미아의 ‘저작’ 관행(Rewriting) 때문이다. 현대 저작권 개념과 달리 고대 메소포타미아 작가들은 옛 스토리를 자유롭게 활용했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옛 스토리를 그대로 인용하고 주변에 새로운 내용을 덧붙이는 방식으로 창작했다.<sup>66</sup> 즉 옛 스토리의 어휘, 모티브, 장면을 새로운 문맥에 위치시킴으로 그것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한다. 하지만 옛 어휘나 모티브가 그대로 사용되기 때문에 그것은 언제나 옛 기억에 대한 형상(memory figures)으로<sup>67</sup> 작용한다. 제라드 주네트(G rard Genette)의 팔림프세스트(Palimpsest) 비유를 빌리자면, 길가메시 수메르 서사시를 지우고 그 위에 아카드 서사시를 적었는데, 잘 들여다 보면 그 아래 있는 옛 서사시의 흔적들이 보인다.<sup>68</sup> 이런 의미에서 길가메시 서사시의 표준 버전에서 옛 수메르 서사시의 흔적들을 찾는 빙(J. D. Bing)의 노력은 다시 주목할 필요가 있다.<sup>69</sup> 빙의 논문은 크레이머(1944년)와<sup>70</sup> 마투스(1958년)의<sup>71</sup> 논문 이후 길가메

66 메소포타미아의 저작 개념에 대해서는 다음의 논문들을 참고하라. 특히 S vegi rt 의 논문은 구술 창작에서 메소포타미아의 ‘간본문적’ 저작 행위의 기원을 찾는다. 그리고 Schniedewind는 구약 성서의 저작에 대해서도 비슷한 관찰을 한다. B. R. Foster, “On Authorship in Akkadian Literature”, *Annali dell’Istituto Orientale di Napoli* 51 (1991), 17-32; \_\_\_\_\_, “Authorship in Cuneiform Literature”, I. Berensmeyer (ed.), *The Cambridge handbook of Literary Authorship*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9), 13-26; S. S vegi rt , “Originators in the Old Babylonian Sumerian literary tradition”, *Hungarian Assyriological Review* 3 (2022), 25-47; William M. Schniedewind, *Who Really Wrote the Bible: The Story of the Scribes*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24).

67 J. Assmann, *Cultural Memory and Early Civilization: Writing, Remembrance, And Political Imaginati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7), 기억 형상에 대한 설명은 24-25쪽 참조.

68 Gerard Genette, *Palimpsests: Literature in the Second Degree* (Lincoln: University of Nebraska Press, 1997).

69 Bing, “On the Sumerian Epic of Gilgamesh”, 1-11.

70 Kramer, “The Epic of Gilgamesh and Its Sumerian Sources”, 7-23.

71 Matouš, “Les Rappports Entre La Version Sum rienne et La Version Akkadienne de l’ pop e

시 서사시의 수메르 버전에 대한 회의가 학계를 지배했을 때(1975년) 발표되었다. 따라서 학자들은 그의 견해를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다. 길가메시 서사시에 대한 가장 방대하고 중요한 저작의 주인공 조지(A. George)도 빙의 주장을 각주 하나에 소개하고 그것을 한갓 근거 없는 추측(speculation)이라고 비판할 뿐이다. 조지의 비판은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세속 권력과 종교 권력의 갈등이 고수메르 시대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메소포타미아 역사 전체에 나타난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빙의 증거들이 수메르 단편들이 아닌 아카드 서사시에서 가져왔다는 비판이다.<sup>72</sup> 하지만 이 두 비판 모두 정당하지 못하다. 우리는 방금 고대의 저작 개념에 근거해 아카드 서사시에 수메르 서사시의 흔적들이 들어 있을 수 있음을 살폈다. 또한 빙의 논지는 세속 권력(왕)과 종교 권력(사제) 사이의 갈등이 아니라 우룩의 엔-통치자자 세속적 의무를 추가로 지게 되면서 생긴 두 역할 사이의 갈등이다.<sup>73</sup> 이것은 수메르 시대 고유의 정치적 문제이다. 필자의 견해로는 빙의 논문이 주목받지 못한 것은 그의 결론이 실증의 범위를 넘어서기 때문만이 아니라 수메르 서사시에 대한 학자들의 합의를 위배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가 제시한 논증 자체는 주목할 가치가 있으며, 이미 앞서 제시된 증거들과 함께 수메르 서사시의 존재에 대한 긍정적인 증거로 활용 가능하다.

빙은 길가메시 서사시의 표준 버전에서 문맥상 부자연스러운 요소들에 주목하고 그곳에서 수메르 서사시의 흔적을 간파한다. 빙이 지적한 요소들은 모두 수메르 통치자의 이상적 역할과 관련된 것들이다. 빙의 논의를 이해하기 위해 먼저 우룩의 통치자 엔(en)의 역할이 3천년기

---

de Gilgamesh", 83-94.

72 George, *The Babylonian Gilgamesh Epic: Introduction, Critical Edition, and Cuneiform Texts*, 16, footnote 44.

73 Katz, *Gilgamesh and Akka*, 28-30.

수메르 왕정 시대에 어떻게 변화했는지 살펴보자.

우룩의 엔-통치자는 본래 인안나 신전의 경제 행정의 수장이었다. 기원전 4천년기 우룩의 신전은 도시의 경제 재분배의 기관(redistribution center)으로 기능했으며, 신전에 공납된 재화의 일부는 신전 유지에 또 다른 일부는 필요에 따라 우룩 시민에게 다시 환원되었다.<sup>74</sup> 신전 경제를 책임지던 엔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에안나(Eanna) 신전의 여신과의 관계이다. 그는 인안나(Inanna) 여신과 신성 혼인 의식을 거행함으로 신전 책임자로서의 정당성과 역할 수행의 동력을 얻게 된다. 이런 엔의 역할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유물이 ‘우룩 꽃병’(기원전 3300년, 그림 1)이다. 약 1미터 높이의 이 유물 표면에는 삼층의 양각 부조가 새겨져 있다. 맨 아래층에는 보리 이삭들 위로 염소와 양들이 나열해 있는데, 이것은 당시 핵심 경제인 농업을 의미한다.<sup>75</sup> 두 번째 층에는 벌거벗은 제사장들이 에안나 신전으로 공물을 나르고 있다. 그리고 첫번째 층의 중앙에는 인안나 여신이 그녀의 상징인 두 개의 문기둥 앞에서 있다. 그 두 문기둥은 신전 입구를 상징한다. 그녀는 신전에 바쳐진 공물들을 받고 있다. 한편, 왼쪽에 화려한 옷을 입고 인안나와 비슷한 높이로 서 있는 인물이 엔-통치자이다.<sup>76</sup> 이 장면은 단순히 엔이 인안나의 신전에 공물을

74 마르크 반 드 미에를, 「고대 근동 역사」(서울: CLC, 2020), 56, 원제는 Marc van de Mieroop, *A History of the Ancient Near East* (Malden: Blackwell, 2007).

75 박성진은 4천년기 우룩 경제에서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을 너무 크게 생각하는 것에 대해 비판한다. 당시 수메르 남부 지역은 늦지대여서 농업과 함께 어업이나 무역 등이 경제에 기여하는 비중도 높았을 것이라 생각한다. 박성진, “문명의 조건: 기원전 4천년기 서아시아의 우룩 평창 현상”, 「고대문명 형성의 물질적, 정신적 토대」(단국대 고대문명 연구소 제2회 학술대회 자료집), 9-46.

76 인안나 여신의 뒤에 신전 내부의 모습을 형상화한 장면이 나온다. 그 장면은 췌기 문자 EN(𒂗)을 형상화한 것이다. 인안나 뒤의 두 기둥도 췌기 문자 INANNA(𒂗𒂗)를 형상화한 것이다. 미술이 문자처럼 사용된 가장 오래된 예이다. Z. Bahrani, *Mesopotamia: Ancient Art and Architecture* (New York: Thames&Hudson, 2022), 48. 바흐라니(Z. Bahrani)에 따르면 이 우룩 꽃병의 부조는 수행적 이미지(performative image)이다. 즉 부조는 어떤 장면을 묘사하는 것을 넘어 그 장면이 현실이 되도록 만드는 마술적 힘을 지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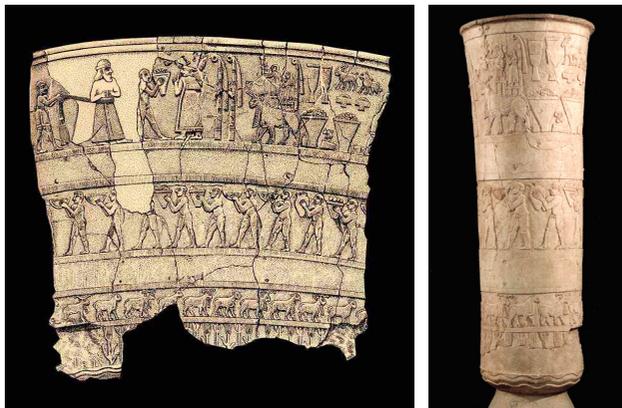


그림 1. 우룩 꽃병(BC 3300년)

바친다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다. 이 장면은 신성 결혼식을 연상시킨다. 수메르 신화 <엔릴과 수드>에 따르면 신랑 엔릴은 신부 수드의 집으로 가축과 곡식을 보낸다. 신부가 선물을 받는 것은 곧 결혼을 의미한다.<sup>77</sup> 신랑과 신부의 구애 행위도 신부의 집 앞에서 이루어진다(<엔릴과 수드> 17-26행 참조). 엔이 문 앞에서 있는 인안나에게 선물을 보내는 것은 그들의 혼인 관계를 상징한다. 이처럼 우룩의 엔-통치자는 인안나의 남편으로 신전과 도시의 풍요를 책임지는 자였다.

그후 3000년기 초기 왕정 시대가 되면 엔-통치자의 역할이 세속적 기능 즉 외교와 국방으로 확장된다. 엔은 군사적 리더 루갈로서 역할(lugal-ú-tum)도 수행하게 된다.<sup>78</sup> 수메르 단편 <빌가메시와 아가>는 길

77 Black et al., *The Literature of Ancient Sumer*, 106-11.

78 수메르 신화 <인안나와 엔키>에서 수메르 문명의 주요 원리들이 메(me)로 나열되는데, 가장 먼저 언급되는 것이 엔이다. '루갈'은 네번째 '메'로 언급된다. 이것은 수메르 세계관에서 엔과 루갈이 차지하는 상대적 중요도를 암시한다. 엔이 본래 신전 관리자에서 출발해 군사적 역할까지 수행했다면, 루갈은 국가의 특별한 필요에 의해 임시적으로 임명된 군사적 리더였을 가능성이 있다. 루갈이 어떻게 생겨나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좋은 예는 <에누마 엘리쉬>이다. 신들이 티아맛의 공격에 직면했을 때 그들은 마르둑을 루갈로

가메시의 군사적 역할을 강조한다. 길가메시는 키쉬의 왕 아가의 억압적 통치를 끝내고 우룩의 영토를 넘어 수메르 전체에 대한 패권을 가져온다. 이것은 그가 님푸르의 사원을 봉헌했다는 톱말 비석에 의해 확인된다: “두 번째로 톱말이 폐허가 되었다. 길가메시는 엔릴의 집 누문부라(Numunburra)를 건설했다(11-12행).”<sup>79</sup> 수메르 전체에 대한 정치적 패권을 주장하는 도시 왕들은 수메르의 종교 수도였던 님푸르에 석비를 봉헌함으로 그 정당성을 인정 받으려 했다.<sup>80</sup> 톱말 비문은 우룩의 엔-통치자였던 길가메시도 예외가 아님을 보여준다. 3천년기 고수메르 시대에 확장된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우룩의 통치자들은 신전 관리자로서의 역할과 군사적 지도자로서의 역할의 균형에 집중했을 것이다. 이것은 수메르 단편들에도 나타난다. <빌가메시와 후와와>와 <빌가메시와 하늘 황소>에서 빌가메시는 전사의 이미지와 경건한 자의 이미지를 모두 보여준다. 길가메시 서사시에서 길가메시가 철저히 신을 모독하는 전사로 그려지는 것과 대조적이다. 길가메시를 비롯한 우룩의 왕들을 이상적 왕으로 여긴 신수메르의 왕들의 경우, 신전 관리자로서의 역할과 군사 영웅으로서 역할 사이에 대한 고민이 특히 컸을 것이다.<sup>81</sup> 길

---

임명하여 그가 티아맛과 전투하도록 만든다. 처음에 임시적이었던 루갈이 영구적이 되었던 때는 초기 왕정 시대 후반이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 때에 도시 간 분쟁이 심해져 (예, 라가시와 움마의 영토 분쟁) 군사적 리더십이 매우 중요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영구적이 된 루갈은 군사적 역할에 머물지 않고 행정과 경제에 대한 권한도 가지기 시작했을 것이다. 이 때에 우룩(en)과 라가시(ensi)를 제외한 도시 국가들의 수장은 루갈로 불렸다. 그리고 아카드 왕 사르곤이 수메르 지역을 통일하면서 루갈 전성 시대가 도래한다. 아카드 제국의 붕괴 후 다시 찾아온 수메르 시대는 이상적 통치자의 역할에 대한 고민이 무척 컸을 것이다. 이런 사회적 고민이 우르 3왕조의 왕들이 이상적으로 여긴 길가메시의 수메르 서사에 표현되지는 않았을까? 엔과 루갈에 대한 설명은 Katz, *Gilgamesh and Akka*, 28-30에 의존하고 있다.

79 Samuel N. Kramer, “Gilgamesh: Some New Sumerian Data,” P. Garelli(ed.), *Gilgamesh et Sa Légende* (Paris: Librairie C. Klincksieck, 1960), 61.

80 T. Jacobsen, “Early Political Development in Mesopotamia”, *ZA* 52 (1957), 103-4.

81 술기는 통치 중 여러 개혁을 단행하는데, 군사적 영웅 나람신처럼 스스로 신으로 등극한

가메시 서사시의 수메르 버전이 존재했다면, 빙에 따르면, 그것은 분명히 3천년기 수메르 왕들의 관심을 반영했을 것이다. 즉 수메르 서사시는 엔과 루갈의 역할을 한 사람이<sup>82</sup> 수행하면서 생기는 문제를 다룬다.<sup>83</sup>

빙은 길가메시 서사시 표준 버전에서 몇 가지 어색한 구절과 모티브들에 주목하면서 그것들이 엔의 전통적 역할과 새로 확장된 역할 사이의 갈등을 반영한다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이런 수메르적 주제를 보여주는 힌트들은 무엇인가? 먼저, 토판 I에서 “우룩의 목자”로 소개되는 길가메시가 성적 욕구를 억제하지 못하는 억압적 왕으로 그려지는 대목이다.<sup>84</sup>

Šū rē'umma ša Uruk supūri / ūl umaššar Gilgameš mārta ana ummiša  
그는 양우리 우룩의 목자이다. / 딸들을 어머니에게 놓아주지 않는다.  
다. (토판 I: 71-72)

함무라비 법전 결문에 목자적 왕에 대한 아카드 정의가 나온다: anākuma rē'um mušallimum ša ḥaṭṭašu išarat “목자는 바로 나다. 나는 평화를 가져오고 내 통치는 정의롭다.” 아카드인들에게 목자적 왕은 평화롭고 정의로운 왕이라는 점에서 위에 인용된 구절은 분명 모순적이다. 왕의 목자적 역할과 우룩의 모든 딸들에 대한 왕의 권리가 무슨 연관이 있을까? 빙에 따르면 수메르 전통에서 목자적 왕의 의미는 신전 경제 관리자다. “목자”가 가축을 공급하는 것처럼, 왕의 역할 중 하나도

동시에 발라(bala) 제도를 도입하여 경제 행정가로서의 면모도 보이려 했다.

82 아카드 전통에서는 루갈과 엔의 역할을 다른 사람이 수행한다. 최초의 아카드 왕 사르곤은 자신의 딸을 우룩의 엔으로 임명하였다. 즉 아카드 왕들도 제의에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신전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일은 사제가 담당했다.

83 Bing, “On the Sumerian Epic of Gilgamesh”, 10.

84 Bing, “On the Sumerian Epic of Gilgamesh”, 4.

신전에 공납을 책임지는 것이다. 그리고 그 통치자는 인안나와의 혼인을 통해 풍요로운 통치의 동력을 얻는다. 빙에 따르면, 길가메시가 우룩의 모든 여자와 잠자리를 하는 것은 바로 그 신성 결혼식에 대한 흔적이다.<sup>85</sup> 이런 관점에서 우룩의 목자 길가메시가 “딸들을 어머니에게 놓아주지 않는 것”은 엔-통치자로서 본분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한 것이라는 해석이 가능하다.<sup>86</sup> 이처럼 빙은 일견 모순적으로 보이는 구절에서 수메르 통치자의 이상을 발견한다.<sup>87</sup>

그 다음에 빙이 제시하는 증거 본문들은 “문”과 연관된 단어 혹은 모티브와 연관되어 있다. 먼저 “문”과 연관된 아카드어 ‘시푸’(šippu)가 문맥적으로 불필요한 상황에 사용된 두 장면을 살펴보자. 한번은 ‘시푸’가 길가메시와 엔키두의 씨름 장면에서, 다른 한 번은 인안나가 길가메시에게 청혼하는 장면에서 사용된다.

<sup>d</sup>en-ki-dù ina KÁ É e-mu-ti ip-te-rik šēpīšu  
<sup>d</sup>Giš-gím-maš a-na šu-ru-bi ul i-nam-din  
 iṣ-ṣab-tu-ma ina KÁ É e-mu-ti  
 ina sūqi it-te-eg-ru-ú ri-bit ma-a-tu  
 Sip-pu ir?-ú-bu iga-ra i-UD-uš

엔키두가 그의 발로 결혼 집 문을 막아섰다.  
 길가메시가 들어가지 못하게 했다.  
 그들은 결혼 집 입구에서 서로 부여잡았다

85 Bing, “On the Sumerian Epic of Gilgamesh”, 4.

86 Bing, “On the Sumerian Epic of Gilgamesh”, 4.

87 우룩이 우르 3왕조 시대에 수메르의 종교 혹은 수메르 전체를 대표하는 상징이 되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다음의 논문을 참고하라. Berlin, “Ethnopoetry and the Enmerkar Epic”, *Journal of the American Oriental Society* 103 (1983), 17-24.

길에서 땅의 대로에서 씨름했다.  
문설주가 (부서졌다?) 벽이 (무너졌다?)  
(토판 II: 111-115행)<sup>88</sup>

이 다음 부분의 토판이 훼손되었고, 115행의 동사들의 의미가 확실하지 않아, 그곳에 언급된 ‘시푸’의 의미를 단정하기는 어렵다. 보통은 ‘시푸’를 문설주(door jams)로 번역하고,<sup>89</sup> 문설주의 부서짐을 씨름의 격렬함을 나타내는 표현으로 이해하지만, 같은 목적이 보다 일반적인 어휘인 ‘바부’(babu “성문”)으로 달성되었을 수도 있음을 생각하면, 왜 문설주를 의미하는 ‘시푸’라는 특정한 어휘를 사용했는지에 의문을 가질 수 있다.<sup>90</sup> 빙은 ‘시푸’의 파괴가 가지는 중요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상적 왕에 대한 수메르 사회의 고민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를 위해 빙은 ‘시푸’를 인안나 혹은 인안나 신전의 상징으로 이해한다.<sup>91</sup> 빙에 따르면 ‘시푸’는 건물 문 양쪽에 설치된 기둥 모양의 조형물로 우рук 꽃병에서 확인한 바처럼 인안나의 상징으로 사용될 뿐 아니라, 인안나를 표기하는 췌기문자의 원형(𒂗)이다.<sup>92</sup> 길가메시가 엔키두와 씨름하는 과정에서 인안나의 상징물이 부서졌다는 것은 길가메시와 인안나의 관계의 파탄을 암시한다. 씨름으로 문기둥이 무너진 직후 길가메시와 엔키두는 절친이 되는데, 그 때 엔키두가 길가메시를 루갈(=아

88 음역과 번역은 조지의 비평본을 참조하였다: George, *The Babylonian Gilgamesh Epic*, 562-563.

89 George, *The Epic of Gilgamesh*, 16.

90 115행에서 ‘이가루(igaru)’(“벽”)가 ‘시푸’의 대구어로 등장한다. 하지만 이가루 “벽”과 보다 자연스러운 대구어는 바부(babu) “문”이다. CAD b, 18 참조.

91 Bing, “On the Sumerian Epic of Gilgamesh”, 5-6.

92 Bing, “On the Sumerian Epic of Gilgamesh”, 5-6; Z. Bahrani, *Mesopotamia: Ancient Art and Architecture* (New York: Thames&Hudson, 2022), 48.

카드어 샤룸 shrum) 즉 ‘왕’로 재정의한 것은 의미심장하다. 시푸가 부서지면서 길가메시는 루갈로서 역할을 수행하기 시작한다.

ul-lu e-li mu-ti re-eš-ka  
Šar-ru-tam ša ni-ši i-ši-im-kum <sup>d</sup>En-lil

너의 머리가 용사들 위에 높이 들렸다.  
엔릴께서 너에게 사람들 위의 왕권을 부여하셨다.  
(Pennsylvania 238-239행)<sup>93</sup>

이제 길가메시는 인안나 신전을 떠나 먼 곳에 가서 그의 이름을 드높이려 한다. 그는 루갈로서 먼 나라에 있는 삼나무 숲으로 가서 엄청난 업적을 이룬다. 이것은 단순한 벌목 원정이 아님을 보여주는 증거는 빌가메시 단편 BH와 길가메시 서사시 모두에서 벌목의 과정이 적과의 싸움으로 치환된다는 것이다. 즉 삼나무 숲으로의 원정은 엔의 군사적 업적을 암시한다. 원정의 목적이 명시적으로 후와와를 죽이는 것은 아니었던 수메르 단편과 달리, 아카드 서사시에서 길가메시는 처음부터 삼나무 숲의 괴물을 죽이는 것을 처음부터 여행 목적으로 선언했다. 더구나 그 괴물이 신(<sup>d</sup>hum-ba-ba)이라는 사실은 아카드 서사시에서 루갈의 군사적 업적이 극단적 형태로 표현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처럼 길가메시 서사시에서는 우룩의 엔-통치자의 두 역할 사이에 균형이 완전히 붕괴되었다. 루갈의 직무를 지나치게 수행하다가 신전 관리자로서 직무는 소홀하게 되었다.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인안나의 청혼을 거부하면서 시작되는 ‘하늘 황소’ 일화(토판 VI)이다. 그리고 주목할 사실은 길

93 음역과 번역은 조지의 비평본을 참고했다: George, The Babylonian Gilgamesh Epic, 180-181.

가메시에게 청혼하는 인안나의 말 속에서 아카드어 ‘시푸’가 다시 사용된다는 것이다.

A-na É-ni i-na e-re-bi-ka / **sip-pu** a-rat-tu-ú li-na-áš-ši-qu  
GÌR<sup>min</sup>-ka

그대가 우리의 집에 들어올 때 / 문설주와 보좌가 그대의 발에 키스  
할 것이오.

(토판 VI:14-15행)

시푸가 인안나의 엠블럼임을 상기할 때 그것이 청혼의 문맥에 다시 사용된 의미를 이해할 수 있다. 길가메시와 인안나의 관계가 파괴되는 문맥에 처음 사용된 ‘시푸’가 그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문맥에 다시 사용된 것은 우연이 아니다. 수메르 세계에서 인안나와 엔-통치자의 혼인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엔-통치자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 그가 인안나와 부부가 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아카드 버전에서 길가메시는 인안나를 성욕 많고 변덕스러운 여신으로 비하하면서 그녀와의 결혼을 거부한다.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한 수메르 단편 〈빌가메시와 하늘 황소〉의 내용을 이미 살펴보았다. 수메르 단편 속 빌가메시도 인안나의 남편이 되어 기파루에 머무는 삶을 거부했다. 하지만 그가 인안나와 관계를 완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그는 인안나 신전을 위한 공납을 계속 바치겠다고 약속한다. 아카드의 길가메시와 달리, 수메르의 빌가메시는 청혼하는 여신을 조롱하지 않는다. 기원전 14세기 것으로 추정되는 히타이트 사본은 이 문제에 관해 아카드 서사시보다 수메르 단편에 더 가까운 본문을 증거한다. 히타이트 버전에 따르면 길가메시가 후와와를 무찌른 후 바로 우룩으로 돌아가지 않고 인안나를 찾아간다. 앞서 신전 문기둥이 부서진 것에 화가 나 있는 인안나를 달래기 위해서

이다. 흥미롭게도 히타이트 버전에서 길가메시와 인안나는 보다 친근한 관계로 그려진다. 길가메시는 신전의 재건축을 돕고 공물을 계속 제공할 것이라고 말한다.<sup>94</sup> 이것은 신전에 공납을 제공하겠지만 인안나의 남편으로 신전 안에 머무는 것을 거부한 수메르의 빌가메시를 연상시킨다.

수메르 서사시의 흔적으로 빙이 제시하는 마지막 증거에서 시푸(“문기둥”)라는 단어는 사용되지 않지만 “문”과 관련된 모티프는 여전히 지배적이다. 엔키두가 자신의 죽게 될 것임을 알게 된 후 그를 죽음에 이르게 한 다양한 주체들을 저주한다(토판 VII). 흥미롭게도 엔키두가 가장 먼저 저주한 것은 문(<sup>GIS</sup>daltu)이다. 빙은 아카드 저자가 엔키두가 문을 의인화하여 저주하는 이유를 몰랐을 것이라 말하면서, 문을 인안나의 상징으로 이해할 때 그 저주가 제대로 이해된다고 주장한다: “오 문(인안나여)! 이것이 너의 의도임을 알았더라면, 너의 아름다움이 재앙을 가져올 것을 알았더라면, 내가 도끼를 들어, 너를 모두 부수었을 텐데…”(토판 VII:47-49).<sup>95</sup>

이상의 논의처럼 빙은 길가메시 아카드 버전에서 수메르 버전의 흔적을 찾으려 했다. 그는 결론에서 다음과 같은 취지로 말한다: ‘위에서 제시된 증거들에 근거해 길가메시 서사시의 구전 역사에 대해 추론(speculation)할 수 있다. 구전 수메르 서사시는 사제적/경제 행정적 역할(엔)과 군사적 역할(루갈)이 한 통치자에 의해서 수행될 때 생기는 문제점들을 다룬다. 그 구전 서사시는 우르 3왕조에 처음으로 문자화 되었

94 G. Beckman, *The Hittite Gilgamesh* (Atlanta: Lockwood Press, 2019), 33-52; Bing, “On the Sumerian Epic of Gilgamesh”, 7.

95 인용은 빙(Bing)의 의역이다. “O ‘Inanna,’ had I known that this was [thy purpose], and that [thy beauty] would bring on this disaster, I would have lifted an ax and shattered thee all.” Bing, “On the Sumerian Epic of Gilgamesh,” 9.

을 것이다. 우르 3왕조의 시조 우르남무(Ur-<sup>4</sup>Nammu)는 우룩 출신의 왕으로, 그의 아들 숯기도 초기 왕정 시대의 우룩의 왕들과 친족 관계를 주장했다. 우룩 전승들이 이 시대에 문자화 된 것은 놀랄 일이 아니다. 하지만 우르 3왕조 시대에는 수메르 버전을 관통하는 문학적 모티브가 초기 왕정 시대만큼 중요한 주제가 아니었기에, 수메르 단편들은 수메르 서사시의 통일적 주제로 연결될 필요는 없게 된다. 따라서 우르 3왕조 때에 문자화된 수메르 단편들은 독립적인 일화의 성격을 가지게 되고, 그렇게 공연 되었을 것이다. 그리고 이런 일화들이 아카드어로 번역 되었을 때<sup>96</sup> 고바빌론 시인은 당대의 문화적 경험을 반영하는 모티브들을 사용해 수메르 일화들을 하나의 통일성 있는 서사시로 묶었다. 길가메시 서사시에 반영된 자연(엔키두)와 도시 문명(길가메시)의 상호작용은 고바빌론 시대의 나라들이 경험한 현실 즉 전통적 수메르 도시민들과 아모리 유목 이민자들이 함께 어울려 사는 현실을 반영한다. 길가메시 서사시의 아카드 버전에서 자연 속 삶과 도시 생활의 장점과 단점들이 논의 된 것은 바로 이런 이유이다.<sup>97</sup>

수메르 시대 길가메시 서사시의 형성과 전승에 관한 그의 주장은 그가 말한 대로 추론(speculation)에 불과하다. 하지만 흥미로운 것은 그가 수메르 서사시와 아카드 서사시가 모두 당시 사회적 문제에 반응한 기억 역사임을 주장한다는 것이다. 즉 각 서사시들은 역사적 길가메시

96 수메르 단편들이 아카드어로 번역되었다는 통찰은 후에 플레밍과 밀스테인(Fleming and Milstein)의 연구의 영감이 된다. 그들은 수메르 단편들을 참고로 고바빌론의 시인이 길가메시 서사시를 창작했다는 학자들의 합의에 수정을 가하는 연구를 출판했다. 그들의 주장에 따르면, 수메르 단편들에서 길가메시 서사시 고바빌론 판으로 넘어가기 전에 아카드 단편들이 존재했다. 즉 길가메시 서사시의 작가가 수메르 단편을 자료로 삼은 것이 아니라 아카드어로 된 길가메시 단편들을 참고했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빌가메시와 후와와〉를 그 사례로 연구한다. Daniel E Fleming and Sara J. Milstein, *The Buried Foundation of the Gilgamesh Epic: The Akkadian Huwawa Narrative* (Leiden: Brill, 2010).

97 이것은 빙의 결론 문단을 가독성을 위해 의역 편집한 것이다. 원문의 출처는 다음을 보라: Bing, "On the Sumerian Epic of Gilgamesh", 10.

에 대해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 이야기를 소비하던 시대의 문제를 반영한다. 빙의 결론적 추론보다 길가메시 서사시의 표준 버전에 대한 그의 문학적 분석은 학문적으로 좀더 고려의 가치가 있다. 표준 버전에 대한 그의 관찰들은 길가메시의 수메르 단편들의 내부적 증거들과 함께 수메르 시대에 단편들을 통합하는 하나의 서사가 존재했음을 암시한다. 길가메시의 서사시의 수메르 버전을 구성했을 내용들을 확정하기는 힘들지만, 현전하는 수메르 단편 토판들과 상호작용한 서사시가 존재했을 가능성은 충분히 보인다.

### 3. 나가는 말

지금까지 우리는 수메르어로 된 길가메시 서사시의 존재 가능성에 대해 분석했다. 비록 수메르 서사시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는 없으며, 다수의 학자들도 수메르 서사시의 존재에 대해 회의적이지만, 위에서 살펴본 다양한 내적 정황 증거들(II-2)은 우룩 3시대에 수메르 서사시가 적어도 구전의 형태로 존재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수메르 문학의 기원이 구전인지는 논쟁의 여지가 있지만, 수메르 서전이 구전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전승되었음을 확실하기 때문에<sup>98</sup> 길가메시 수메르 단편들에 대해서도 그것과 상호 작용하는 구전의 존재를 상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길가메시의 단편들이 다양한 버전으로 존재한다는 것이 그 증거일 수 있다.<sup>99</sup> 이런 결론에 근거해 다음과 같은 추가적 추론도 가능하

98 B. Alster, "Interaction of Oral and Written Poetry in Early Mesopotamian Literature", Marianna Vogelzang(ed.), *Mesopotamian Epic Literature: Oral or Aural* (Lewiston: The Edwin Mellen Press, 1992), 23-29.

99 길가메시에 관한 수메르 단편들의 다양한 지역 버전을 정리한 미칼로우스키의 표를

다. 완벽히 인간중심적 세계관을 그린 아카드어 서사시와 달리 수메르어로 된 서사시에 그려진 길가메시는 수메르 전통적 종교에 충실하면서 영웅적 행위를 수행했을 것이다. 아카드의 시인이 길가메시 서사시의 수메르 버전을 어떻게 완전 인간중심주의적 서사로 구성하게 되었는지는 별도의 연구를 필요로 하는 문제이다.

### 참고 문헌

- 박성진, 「문명의 조건: 기원전 4천년기 서아시아의 우рук 평창 현상」 「고대문명 형성의 물질적, 정신적 토대」(단국대 고대문명연구소 제2회 학술대회 자료집), 9-46.
- 마르크 반 드 미에롭, 「고대 근동 역사」(김구원/강후구 옮김), (서울: CLC, 2021).  
원제 Marc van de Mieroop, *A History of the Ancient Near East* (Malden: Blackwell, 2007).
- Alster, B. "Interaction of Oral and Written Poetry in Early Mesopotamian Literature." M. Vogelzang(ed.), *Mesopotamian Epic Literature: Oral or Aural* (Lewiston: The Edwin Mellen Press, 1992), 23-29.
- Assmann, J. *Cultural Memory and Early Civilization: Writing, Remembrance, And Political Imaginati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7).
- Bahrani, Z. *Mesopotamia: Ancient Art and Architecture* (New York: Thames&Hudson, 2022).
- Beckman, G. *The Hittite Gilgamesh* (Atlanta: Lockwood Press, 2019).
- Berlin, Adele. "Ethnopoetry and the Enmerkar Epics", *Journal of the American Oriental Society* 103 (1983), 17-24.
- Bing, J. D. "On the Sumerian Epic of Gilgamesh", *Ancient Near Eastern Studies* 7 (1975), 1-11.
- Black, J. "Some Structural Features of Sumerian Narrative Poetry." Marianna E. Vogelzang(ed.), *Mesopotamian Epic Literature: Oral or Aural?* (Lewiston: The Edwin Mellen Press, 1992), 71-102.

---

참조하라. Michalowski, "Maybe Epic: The Origins and Reception of Sumerian Heroic Poetry," D. Konstan(ed.), *Epic and History* (Malden, MA: Blackwell, 2010), 18.

- Black, Jeremy, Graham Cunningham, Eleanor Robson, and Gábor Zólyomi. *The Literature of Ancient Sumer*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4).
- Cavigneaux, A., and F. N. H. Al-Rawi. *Gilgameš et La Mort Textes de Tell Haddad VI Avec Un Appendice Sur Les Textes Funéraires Sumériens* (Groningen: Stys Publication, 2000).
- Charpin, D. *Le Clergé d'Ur Au Siècle d'Hammurabi (XIXe-XVIIIe Siècle AV. J. -C)* (Paris: Droz, 1986).
- Delnero, P. "Sumerian Literary Catalogues and the Scribal Curriculum", *Zeitschrift Für Assyriologie Und Vorderasiatische Archäologie* 100 (2010), 32-55.
- \_\_\_\_\_, "Variation in Sumerian Literary Comositions: A Case Study Based on the Decad" (Ph.D. Dissertation: The University of Pennsylvania, 2006).
- Dossin, G. "Enkidou Dans l'Épopée de Gilgameš", *Bulletin de l'Académie Royale de Belgique, Cesse Des Lettres* 42 (1956), 580-593.
- Fleming, Daniel E. and Sara J. Milstein, *The Buried Foundation of the Gilgamesh Epic: The Akkadian Huwawa Narrative* (Leiden: Brill, 2010).
- Falkenstein, A. "Gilgameš. A. Nach Sumerischen Texten", Erich Ebeling(ed.), *Reallexikon Der Assyriologie* (Berlin: Water de Gruyter, 1957), 3:357-64.
- Gadotti, A. "Gilgameš, Enku and the Netherworld and the Sumerian Gilgameš Cycle" (Ph.D. Dissertation: The Johns Hopkins University, 2005).
- \_\_\_\_\_. *Gilgamesh, Enkidu and the Netherworld and the Sumerian Gilgamesh Cycle* (Berlin: De Gruyter, 2014).
- Genette, Gerard. *Palimpsests: Literature in the Second Degree* (Lincoln: University of Nebraska Press, 1997).
- George, A. "The Epic of Gilgamesh: Thoughts on Genre and Meaning", J. Azize(ed.), *Gilgamesh and the World of Assyria. Proceedings of the Conference Held at Mandelbaum House, the University of Sydney*, (Leuven, 2004), 37-67.
- George, Andrew. *The Babylonian Gilgamesh Epic: Introduction, Critical Edition, and Cuneiform Text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3).
- \_\_\_\_\_. *The Epic of Gilgamesh* (UK: Penguin, 2020).
- Holm, T. "Literature", D. M. Snell(ed.), *A Companion to the Ancient Near East* (Oxford: Blackwell, 2005), 253-265.
- Jacobsen, Thorkild. "Early Political Development in Mesopotamia," *Zeitschrift Für Assyriologie Und Vorderasiatische Archäologie* 52 (1957), 91-140.
- Jastrow, M. *An Old Babylonian Version of the Gilgamesh Epic on the Basis of Recently*

- Discovered Texts*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1920).
- Katz, Dina. *Gilgamesh and Akka* (Groningen: Styx Publications, 1993).
- Kramer, Samuel N. "Gilgamesh: Some New Sumerian Data." P. Garelli(ed.), *Gilgameš et Sa Légende* (Paris: Librairie C. Klincksieck, 1960), 59-68.
- \_\_\_\_\_. "The Epic of Gilgameš and Its Sumerian Sources", *Journal of the American Oriental Society* 64 (1944), 7-23.
- \_\_\_\_\_. "The Oldest Literary Catalogue: A Sumerian List of Literary Compositions Compiled about 2000 B.C.", *Bulletin of the American Schools of Oriental Research* 88 (1942), 10-19.
- Langdon, S. "The Sumerian Epic of Gilgameš", *The Journal of the Royal Asiatic Society of Great Britain and Ireland* 4 (1932), 911-48.
- Matouš, L. "Les Rapports Entre La Version Sumérienne et La Version Akkadienne de l'épopée de Gilgameš," P. Garelli(ed.), *Gilgameš et Sa Légende* (Paris: Librairie C. Klincksieck, 1958), 83-94.
- Michalowski, P. "Carminative Magic. Towards an Understanding of Sumerian Poetics", *Zeitschrift Für Assyriologie Und Vorderasiatische Archäologie* 71 (1981), 1-18.
- \_\_\_\_\_. "Charisma and Control: On Continuity and Change in Early Mesopotamian Bureaucratic Systems", M. Gibson(ed.), *The Origination of Power: Aspects of Bureaucracy in the Ancient Near East*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87), 45-57.
- \_\_\_\_\_. "Maybe Epic: The Origins and Reception of Sumerian Heroic Poetry", D. Konstan(ed.), *Epic and History* (Malden, MA: Blackwell, 2010), 7-25.
- \_\_\_\_\_. "Sumerian Literature: An Overview", Jack M. Sasson(ed.), *Civilizations of Ancient Near East* (Peabody, MA.: Hendrickson Publishers, 1995), 2279-91.
- Gonzalo Rubio, "Reading Sumerian Names, II: Gilgameš", *Journal of Cuneiform Studies* 64 (2012), 3-16.
- Sanmartín, J. *Gilgameš Rey de Uruk* (Itorial: Trotta, 2018).
- Tigay, Jeffrey H. *The Evolution of the Gilgamesh Epic* (Wauconda: Bolchazy-Carducci Publishers, 2002).
- \_\_\_\_\_. "Was There an Integrated Gilgamesh Epic in the Old Babylonian Period?", Maria de Jong Ellis(ed.), *Essays on the Ancient Near East in Memory of Jacob Joel Finkelstein* (Hamden: Archon Books, 1977), 215-218.
- Veldhuis, N. C. *Religion, Literature and Scholarship: The Sumerian Composition "Nanše and the Birds."* (Leiden: Brill, 2004).

\_\_\_\_\_. “Review Article: The Solution of the Dream: A New Interpretation of Bilgames’ Death”, *Journal of Cuneiform Studies* 53 (2001), 133-48.

검색어

길가메시, 빌가메시, 메소포타미아 문학, 송영, 문학 목록, 구전 문학, 본문형성사

[ ABSTRACT ]

## Did the Epic of Gilgamesh exist in Sumerian?

Koo-won Kim  
Junju University

Among the literary works of ancient Mesopotamia, the Epic of Gilgamesh is the one whose formative history is best traced. The earliest known 'later' or 'canonical' version dates from the 7th century BCE, but its prototype can be traced back to the Old Babylonian period. So how did the Old Babylonian version of the Epic of Gilgamesh come to be written? Even before Sumerian poems of Gilgamesh were known, scholars believed that its origins could be traced back to Sumerian times. In fact, the publication of Sumerian poems of Gilgamesh in the early 20th century spurred research into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Epic of Gilgamesh and the Sumerian poems. While many scholars agree that the Sumerian poems serve as the "source material" for the Akkadian epic, they are skeptical about the existence of a Sumerian epic that utilizes the Sumerian poems of Gilgamesh.

This essay aims to critically examine that consensus and explore the possibility of the existence of a Sumerian version of the Epic of Gilgamesh. To this end, I will present an alternative interpretation of the evidence presented by scholars who deny the existence of the Sumerian epic, as well as Bing's research on the traces of the Sumerian epic hidden within the Gilgamesh epic. For example, doxologies, which have been presented as evidence for the independence of the Sumerian poems, point to the end of

www.kci.go.kr

an oral performance and do not negate the possibility that the story is part of a larger narrative. Also, according to Bing, the theological and thematic contradictions in the Gilgamesh epic hint at traces of the Sumerian epic. The above discussion suggests that it is possible that Sumerian epics existed, at least in oral form, during the Third Dynasty of Uruk. While the oral origins of Sumerian literature are debatable, it is clear that the Sumerian epics were transmitted through interaction with the oral tradition, so it is reasonable to assume the existence of a Sumerian epic, at least in an oral form, underlying Sumerian poems featuring Gilgamesh. The paper may be expected to provide an example of how close reading of an ancient text may reveal its compositional layers.

key words

Gilgamesh, Compositional History, Bilgamesh, Mesopotamian Literature, Praise, Literary Catalogue, Orality

투고일 : 2024년 07월 16일

심사일 : 2024년 08월 12일

게재 확정일 : 2024년 08월 25일

www.kci.go.kr